

# OECD/DAC 제61차 통계작업반 회의 결과

DAC 제61차 통계 작업반 회의가 6.9(수)~10(목)일간 OECD 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ODA 적격 국제기구 목록 개정, 원조전달채널의 분류와 정의, 국제평화유지활동 관련 지침 개정 및 계상비율 조정, 신규원조형태 보고 관련 이행 현황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 I. 핵심 요지

### 가. ODA 적격 국제기구 명단 개정

DAC통계지침의 ODA 적격 국제기구 목록(Annex2)을 개정하여 2009년 확정통계 보고시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사무국은 개정안이 반영된 신규 목록을 공지하기로 함. 사무국은 Annex2의 개정을 위하여 현재 매년 3월말 기한으로 접수하였던 회원국의 국제기구 등재 신청을 2011년부터 2.28일로 변경한 바, 회원국들이 유의할 것을 당부함. 사무국은 차년도 회의에서 UNO, UNWTO, ITU, WIPO, UPU, WMO 등의 ODA 적격계수 및 등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공지함.

### 나. 원조전달채널(channel of delivery) 개정

회원국은 통계보고 일관성 제고를 위해 원조전달채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관련 통계 지침들에 반영하자는 사무국 제안에 합의함. 회원국은 원조전달채널 공공부문(10000), NGO 및 시민사회(20000), PPP 및 네트워크(30000), 다자기구(40000)의 세부항목 정의에 합의함. 다만, 기타(50000) 항목의 경우 회원국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 합의 도출은 추가 진행토록 결정하였고, 그 전까지는 현 구분을 유지하자는 사무국 제안에 회원국이 동의함.

## 다. 구속성 여부 보고 개선 논의

캐나다는 현재 통계보고 기준에 따라 공여국내 난민비용, 간접연수생 비용 등은 비구속성/구속성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속성 여부를 적용하지 않는 새로운 항목으로 'not applicable'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일본은 구속성 보고는 2001 DAC 권고안(2001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Aid)과의 일치(consistency)가 중요한 바, 동 논의는 DAC 정례회의에서 먼저 논의되어야 함을 주장함.

우리나라는 구속성 원조에 관련된 논의가 정책적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일본과 미국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DAC 회원국으로서 언타이드 비율 제고를 위해 노력중임을 설명함. 한편 우리나라도 봉사단 파견, 연수생 지원(scholarship) 등 일부 원조의 경우 구속성 여부 판단이 어려운 사례가 있음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회원국의 의견에 동참함.

## 라. 국제평화유지활동의 ODA 보고 방안 개정

UNDPKO하의 평화유지활동으로만 제한하던 ODA 보고를 UN 이외의 유사한 국제기구(예. UN, NATO, EU 등)로 확대하자는 사무국의 제안에 회원국들이 동의함. 회원국은 사무국이 제안한 국제평화유지활동 관련 통계지침 변경(안)에 대해 승인하였고, 사무국은 이를 DAC에 제출하여 승인 절차 완료 후 적용될 것이라 안내함.

국제평화유지활동 관련 다자기구의 ODA 적격계수를 검토한 결과, UNDPKO는 7%→6%로 감소, PBF window1은 80%→89%로 확대 및 PBF window2는 100%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2009년 확정통계 보고시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함.

## 마. 신규원조보고형태(New typology of aid) 이행

사무국은 2011년부터 시행되는 신규원조보고형태에 관한 통계지침 수정(안) "DAC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Implementation of the New Typology of Aid(DCD/DAC/STAT(2010) 11)"을 회원국들에게 공지하고 검토의견을 6.30일(수)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우리나라는 동 건의 이행에 따른 과거데이터 검증 시, 긴급구호성금 등 일부 원조 유형이 새로운 원조 유형 체계에 정확히 분류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주

기를 요청함.

## 바. 국제기구 산하 신탁기금 보고방안

사무국은 ODA 적격 국제기구 목록(Annex2)에 등재되지 않은 국제기구 산하 신탁기금 출연에 대한 보고방식이 회원국마다 상이하여 통계 일관성의 문제가 발생한 바, 명확한 보고 방안을 확립하기 위한 회원국의 의견을 요청함.

## 사. 기타 사항

회원국은 지난 2월 제3차 통계작업반-환경네트워크 논의 결과에 따라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완화 마커 정의를 일부 수정하는데 동의하였고, 사무국은 이와 관련한 논의가 추후 계속될 것이라고 공지함. 거버넌스 관련 분야코드 수정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마커 정의 중 자동적으로 '주요 목적'으로 보고되는 분야코드를 수정된 분야코드로 개정하고, 새로 추가된 분야코드에 대해 마커값을 '주요목적'으로 자동 부여하는 데 동의함. 사무국은 개정된 사항은 2009년 확정통계 보고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함.

## II. 관찰 및 건의

(국제사회 통계보고방안 개선 논의에 시의적절한 대응 및 적극적인 참여 필요) 신규 DAC 회원국으로서 DAC 통계작성지침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의 통계보고 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신규원조보고양식 개정 관련, 우리나라 ODA 통계 시스템 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바람직함. 2011년부터 적용될 신규원조형태(new typology of aid) 보고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통계지침(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금번 통계작업반 회의시 논의된 국제평화유지활동 및 관련 국제기구 지원의 ODA 계상범위 및 수준확대는 최근 우리나라의 PRT 및 국제평화유지 관련 활동증대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도 전체 ODA 실적 증대 등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동향을 파악하여 적극 활용하는 것이 요구됨.

구속성원조 비율 보고와 관련 제기된 문제점들이 우리나라 ODA 사업들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바,

통계작성반이 DAC에 제기할 안건의 처리결과 등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원조채널이 국내 공공부문으로 편중되어 있는바, 현재 DAC 원조채널이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관련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특히, NGO 분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회원국이 대체적으로 동의한바, 추후 논의를 거쳐 DAC 통계작성반 차원의 NGO 분류 지침이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이와 관련한 KOICA NGO 분류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KOICA 통계작성지침 준수 강화 및 질적 개선 필요) 신규 DAC 회원국으로서 DAC 통계작성지침 준수 강화 및 KOICA ODA 통계의 질적 개선이 필요함. 특히, 신규원조보고양식 개정 내용 반영, ODA 적격성 심사 강화, 언타이드 보고 확대 등 투명하고 적합한 통계자료 생성 및 보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함.